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6월 19일 수요일 (주간)

제 374 호

산불예방 - 안전성 · 경제성 · 편리성

전자칼리인동

서울 강계사 입구 삼운동길 1호
☎ 02) 725-0250 (대)

佛心院

법어 조대 **무구 스님** 관현 대덕사 주지

“탐욕이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사들이 다 큰곳에서 찾지 말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에 부처님 명호는 본래 자기의 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염탐을 하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화되면 그만큼 세상이 청정해지고 우주가 정화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도난문화재 되돌린 불심

조사당 비락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중흥불사가 한창인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법조)가 때아닌 경사를 맞았다. 바로 30여 년 전 사라진 조사 진영 7점 등 8점의 성보를 되찾은 것이다.

이번에 성보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한 불자의 노력 때문이다. 지난 해 우연히 조사 진영 7점과 나반존자 조각을 입수하게 된 이 불자는, 조사 진영이라면 당연히 절에



조성돼 있었을 것이라 생각에서 어느 절에 있었는지를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대인사의 빛깔있는 책들의 <고승 진영> 권에서 송달당 해인 스님 진영을 발견한 이 불자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진영과 같은 것을 확인하고 고운사를 찾았다. 그리고 고운사 '성보대장목록'을 뒤진 끝에 67년 목록에서 이를 확인했다. 나머지 6점의 진영도 고운사에 봉안돼 있던 것임을 확인했다. 99년 조계종 총무원서 펴낸 <불교 도난문화재 도난백서>에도 빠져 있던 성보가 한 불

자의 신심 어린 노력 끝에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고운사 측은 80년대초 작성된 목록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봐 70년대에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조계종 총무원은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가 소장하고 있던 사람의 자발적 기증에 의해 돌아온 것은 '거의 처음'으로 감격해 했다.

조계종 총무원 통계에 따르면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는 84~99년 316건 453점, 99년 16건 2000년 14건, 2001년 12건에 이르지만 회수율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조계종은 몇 년 전부터 문화재 도난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 전달 수사반 결성, 비지정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

지금도 도난 문화재 은닉 및 보관 행위에 대해 공소 시효를 연장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자들의 관심이다.

고운사 재무 성오 스님은 "사찰과 불자들이 성보에 대해 애정을 가질 때 도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취재2부 기자)

주말·가족 수련회 확산

주요사찰 주5일제 본격화 대비 프로그램 준비

영남불교대 감포에 대규모 수련장 마련

가족단위 참가문의 늘어... 정보센터 개소

오는 7월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불교계가 연휴를 이용해 산사를 찾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말수련회와 가족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주말수련회를 준비한 사찰은

경음철의 수련회와 달리 진지하면서도 여유롭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

영남불교대와의 경우 감포에 대규모 주말 가족수련회장을 마련했다. 오는 22일 개원하는 수련법회장은 법당을 비롯 요사채 5개 동으로 연면적 5000평 규모다. 매주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토요일 오후 3시에 일제 일요일 오후 2시에 회합한다.

참신, 예불, 간경, 사경 등 수행프로그램과 해수욕과 산행, 도자기 빚기 체험, 농사 짓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원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일요일 오후 2시 '염불선 주팔수련회'를, 길상사는 매일 낮에 주말 선 수련회'를 연다. 나주 불회사는 7월 13일부터 8월까지 실시하는 총 7차례의 관음대행회 여름수련회가 끝나면 격주로 주말수련회를 상설화한다.

가족수련회도 하나 들쭉 생겨나고 있다. 화성 용주사(82~4, 예산 수덕사 86~8, 대구 동화사(730~8)), 서울 진

관사(83-18, 흥천 칠불선원(722-29)은 가족단위의 참가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수련회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은 12일 사찰수련회 정보센터(소장 용하스님, www.pog.org)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련회 홍보에 나섰다. ☞ 용하스님 인터뷰 4면

12일 현재 정보센터에 취합된 자료에 따르면, 50여 사찰 및 단체가 어린이(34곳), 청소년(23곳), 일반(28곳), 가족(6곳) 대상의 수련회를 준비 중이다. 명상음악캠프(대원사, 한문학당 미황사), 한민족문화체험(삼보사), 불교상담워크숍(불교상담개발원, 선무도(광교사), 효행수련(용주사), 관음참회(화불사), 청소년국제캠프(파라미타 등) 다양화되고 있다. 사찰수련회 정보센터 = (02)720-1097.

김재경 기자 jkim@buddhista.com

"이종욱·허영호 스님 친일 안했다"

광복회에 반박자료, 인명사전 공정평가 요청

지난 2월말 이종욱, 허영호 스님이 광복회가 발표한 친일인사 708명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계종이 광복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계종 교육원은 11일 이종욱, 허영호 스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요청하는 사유서를 광복회에 전달했다. 교육원은 사유서와 함께 광복회가 제시했던 두 스님의 친일행적 가운데 오류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를 첨부하고, 일부 연구가의 견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두 스님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당시 제시했던 자료가 임해봉 스님



한국팀 월드컵 16강 진출 월드컵에서 한국이 사상 처음 16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14일 저녁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예선에서 1:0으로 승리했다. 태극전사들이 피와 땀으로 16강 진출의 축구를 시작한 14일 조계사 등 전국 사찰과 불자들도 응원 열풍이 일어났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청년 불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하는 모습. 사진=고영배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교사이트

- 현재 가장 중인 불교관련 사이트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⑥ 사이트 마다 차이가 심해 평균적 평가가 어렵다.
- 가장 보장해야 할 분야는?
① 뉴스 ② DB(교리, 경전 등) ③ 디자인 ④ 회원관리 ⑤ 커뮤니티 ⑥ 기타

설문 참여: 6월 20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정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와 현대불교 375호 9면에 실립니다.

미술 월간지 Asian Art

불교 계간지 Tricycle

본사, 독점계약·판매

본사가 영문 미술월간지 <Asian Art(아시안 아트)>와 불교계간지 <Tricycle(트리사이클)>(사진 위)를 독점 계약 판매한다.

홍콩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Asian Art(www.asianartnewspaper.com)는 런던의 아시안 아트 신문사에서 만드는 타블로이드판 월간 미술 전문지로 아시아 지역의 전시 소식과 미술관

새언제

시인 김홍성의 '내말사는 이야기' 7면

박영재 교수의 '침단과학과 불교' 10면

本紙 구독료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를 보다 편리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로 전환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보다 간편 마음으로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좋은 점
 -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 구독료 연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차원 절약 효과도 있습니다.
 - 통장이 구독료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납부확인이 명확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방법
 - ①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아래 희망일자를 컴퓨터로 입력 후 복사하여 자동이체 신청서입니다.
 - ② 자동이체 신청가능 은행: 모은 은행 및 신한(신용) 우체국은 제외
 - ③ 이체 희망일: 매월 5, 15, 25일 중 택일

▶ 자동이체 문의·신청 전화 (02)737-0090(직통) (02)737-8881(대표)

현대불교신문사

깊은산 두메생식

직접 드셔 본 분들의 추천사

자상스님(한양대) 수백하는 4명으로서 이상 좋은 공양은 없다. 늘상 먹어주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된다. 맛이 조금씩은 편이고 공부하는 중이라 특별식을 주로 먹는다.

김말대(분문학 박사, 동덕여대 교수) 생식이 좋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는 들었으나 직접 먹어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효과가 너무 좋아 전복에 시 작하지 못한 것이 이상하다.

한영호(서양화가) 10년 전보다 10년은 젊어졌다. 생식의 효과다.

김중철(공인회계사) 아질 대용성과 건강식으로 인한 제품을 보지 못했다. 특히 다이어트 생식의 효과는 대단하다.

김원기(매주대간 보존 협의회 회장) 환경운동에 일함으로 생식은 너무나 중요하다. 산에 갈 때는 꼭 생식을 지참하고간다.

생식이 화식보다 좋은 이유

1. 생식은 화식에 비해 영양가가 6배~10배 높음 (과학적 데이터 검증)
2. 화식은 생식에 비해 피부를 많이 배움. 육소의 불완전산소를 많이 발생시켜 인체에 과산화작용이 많이 발생함. 성인병 원인이
3. 생식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무가짜(식근)이 없고 정성을 하게 한다.
4. 불성 효소가 많이 있어 노화방지 세포재생에 도움을 준다.
5.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 변비에 좋고 장이 좋다.
6. 자극적인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완전식품이다.
7. 칼로리가 높지 않아 과다한 영양을 몸에 저장하지 않으므로 성인병 예방, 미용에 좋음

전국 불자님들을 위한 특전판매

깊은산 두메생식 심신(心身) 청정!!

지금 깊은산 두메생식을 구매하시면 3가지 특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전 1 프리미엄 상품(64포)을 15% 할인이 149,000원에 할인 판매!

특전 2 www.healthnfood.com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하시면 6개월 무이자

특전 3 생식 구입시 구입대금의 10%를 보시금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 구입방법: 헬스푸드 홈페이지(healthnfood.com)에서 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전화로도 구매 가능 ■ 문의: 031)638-7977(대) 헬스푸드 담당자

깊은산 두메생식은 이렇게 좋습니다

- 10년 넘게 생식을 만들고 직접 체험한 분들이 모여 개발했습니다.
- 백두대간의 정봉산 등천과 보령의 청라호수지역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만듭니다.
- 자연의 순리를 바탕으로 한국사람의 체질과 섭생에 맞게 배합했습니다.
- 최첨단 건조공법, 맑은 암반수 이온처리, 아시아와 등 과학적 최신설비로 만듭니다.
- 맛이 산뜻하고 담백하며 끓여 잘 녹아 매우 드시기 편합니다.
- 생식을 이르는 분들의 수를 찾는 정말 생식다운 생식입니다.

고가 특수성분 함유

- 콜라겐 (피부활성, 노화방지)
- HCA (지방분해, 다이어트)
- 비피데스균 (장정 유산균)
- 유정칼슘 (골다공증 필수영양)
- 해조칼슘 (성인병예방 영양소)
- 키토산 (생체항상성 및 면역)
- *키토산의 체중감소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www.healthnfood.com 031)638-7977 (대)

깊은산 두메생식 알뜰한(프리미엄)

칼기에 맞게 배합한 가장 생식다운 생식

장 유가농산물, 각종 필수 영양소가 살아있는 건강프로그램의 결정체 / 동결건조방식이 아닌 자연건조 방식 사용

성 분 수수, 칼, 철, 마그네슘, 보리, 흑미(국산), 영미, 당근, 참깨, 감자, 키토산, 비피데스균, 요구르트 분말, 코코넛 0.2% 등 40여종

구 상 2,560g (40g x 64포)

제조원: 상화생식농업조합(한국) 판매원: 헬스푸드

종 명	일반판매가	불자님판매가	할인금액	보시금
깊은산 두메생식 알뜰한(프리미엄)	175,000원	149,000원	26,000원	14,900원
깊은산 두메생식 다이어트(프리미엄)	175,000원	149,000원	26,000원	14,900원
깊은산 두메생식 학생식(프리미엄)	175,000원	149,000원	26,000원	14,900원